

“농사도 그림도 삶도 ‘짓는 마음’ 같아...정성 들여야”

허백련미술상 수상 ‘그림으로 농사 짓는’ 박문중 화가 자연·농촌 모티브 65점... 12월25일까지 의재미술관

“당시 난초를 많이 그렸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기초 훈련을 하듯, 난초 선 그리는데 몰두했지요. 수련하듯 묵선을 그렸던 것은 기초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박문중 화가는 연진회 미술원 1기생이다. 연진회 미술원은 의재 허백련 제자들이 주축이 돼 스승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창설했다.

당시 박문중 작가는 연진회 미술원 1기생으로 입문했다. “선의 무거움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말에서 그림을 대하는 공은 정신 같은 게 느껴졌다.

2023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박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12월 25일까지 의재미술관에서 펼쳐지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과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이 공동 개최한다. 초창기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모두 65점이 출품돼 작가의 그림 여정을 볼 수 있다.

전시 개막을 앞두고 만난 박 작가는 첫눈에도 수더분한 인상이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천상 농부라 해도 될 만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배어 나왔다. 현대 그림과 농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상통하는 점이 있다.

무언가를 ‘짓는 마음’은 동일할 것이다. 결실을 맺

기까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정성을 들이는 수고와 있어야 한다. 농사가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박 작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8년 연진회에 들어갔다”며 “도제식 교육으로 진행됐는데 난초 그림을 많이 그렸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의재 선생님이 작고하신 이후 충실헌에서 반년 동안 기거하며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공모전은 저 같은 시골 출신 작가들에게는 ‘비밀 언덕’과도 같았죠. 국전을 준비하며 반년 가까이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입선을 했는데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새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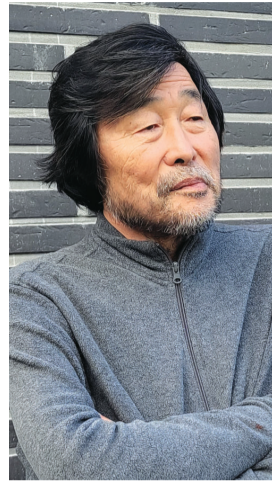
무안에서 태어난 그는 연진회 미술원 1기생으로 그림에 입문 후 1980·9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을 필묵으로 표현했다. 이른바 현실주의 수목화 시기를 거친 것이다. 1997년 답양으로 이주한 후에는 ‘농사짓듯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리듯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부끄럽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는 현재 농사는 안 짓고 텃밭 정도 일구고 있다. 자신은 ‘농부 화가’가 아니라며 그러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이삭 줍는 여인’ 등을 그린 미래는 화가이지 농부가 아닙니다. 농촌의 풍경, 가난의 사회적 의미를 숙고하게 하는 작품들 그렸죠. 우리가 미래를 화가라고 부르지 ‘농부 화가’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박 작가는 남도의 자연과 농촌을 모티브로 흙과 인간이 교감하는 서사를 그린다. 그의 정체성은 ‘그림으로 농사를 짓는 화가’에 달아 있다.

“농경과 농촌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흙과 농사를 모티브로 삼는 이유에 대해 그는 “80년대 이후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그림과 고민을 했다. 잘 아는 것이 농촌이



박문중 화가



‘모내기’

었다”고 했다.

특히 그림 재료로 흙을 사용했다. 아버지가 모아둔 흙을 물에 풀어 썼는데 전에는 풀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

“물감 대신 흙을 염료형태로 풀어 종이에 얹습니다. 먹과 흙, 종이와의 만남이었던 셈이죠. 흙도 광물의 일종이어서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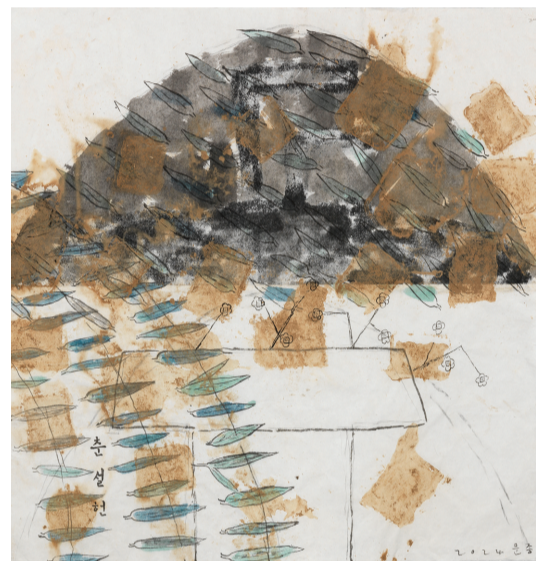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그린 작품 ‘충실헌’은 의재 허백련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다. 후학 양성과 창작의 공간이었던 충실헌을 대나무 숲과 매화꽃에 둘러싸인 풍경으로 묘사했다.

대작도 있다. 전시실에 걸린 ‘무등산’이 그 것. 작가에 따르면 누더기 가까운 종이에 많은 점을 찍어 무등산 형태를 완성했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전시는 허백련 미술상이 시립미술관으로 이관돼 새롭게 출발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며 “연진회 미술원 1기생인 박문중 화가가 수상자로 선정되고 전시를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옥 관장은 “연진회와 농업학교를 통해 지역 일꾼과 인재를 배출했던 의재선생의 철학이 응결된 의재미술관에서 허백련미술상 수상 작가의 전시를 열게 돼 기쁘고 감사”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충실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아이들 웃음꽃’

남정숙 개인전, 11~23일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 현 갤러리

그림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진다. 순진무구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작품 속 해맑게 웃는 아이들은 천사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다.

남정숙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현 갤러리(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본관 내)에서 열린다.

‘웃음꽃’을 주제로 한 전시는 왜 웃음이 꽃이 되는지, 왜 아이들의 미소는 그 자체로 꽃이 되는지 보여준다. 세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는 ‘사과보다 예쁜 나’, ‘행복한 산책’, ‘가족 나들이’, ‘구름 위를 날며’, ‘과수원 길’ 등 모두 40여 점 작품이 출품됐다.

전시를 준비하며 작가는 수없이 고민하고 사유하며 지냈다. 그렸다는 반박했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아이들의 웃음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런 사심이 없는 순수한 동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세상의 어느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치유를 선사한다.

남 작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웃음꽃’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인생 컷을 동화같은 그림으로 재현해 행복하고 따뜻한 그림을 그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름 위를 날며’는 신비로우면서도 동화적이다. 작품은 바나나 나무 위에 달린 커다란 노란 바나나에서 포근히 잠든 아이들을 초점화했다. 두 소녀가 꽃이 핀 과수원을 내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과수원길’은 현실 속 무릉도원을 이미지화한 듯 하다.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다. 삶이 힘들거나 쓸쓸할 때 남 작가의 작품 속에 깃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려고 권유하고 싶다.

구만재 호남대 미술학과 교수는 “순수함과 자연스러운 미소를 담은 남 작가의 이번 작품은 조형성과 사회적 트렌드의 관심으로부터 미적 질서를 찾아가는 예술적 활동”이라며 “작가 자신의 작품 세계와 함께 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작가는 호남대 미술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민국 인문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으며 광주가톨릭미술작가회 정기전 등 다수의 단체전, 한일현대미술추진회전 등 다수 국제교류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름 위를 날며’

광주문화재단 ‘목요 콘서트’ 금관 5중주·성악 매력 느껴요

‘줄리브라스사운드’



7일·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줄리브라스사운드’·‘질러’ 무대

광주문화재단 ‘목요 콘서트’가 올해 두 차례의 공연을 남기고 있다. 금관 5중주를 만나는 ‘해설과 함께하는 줄리브라스사운드’, 성악단체 질러의 ‘노래 입은 우리나라’가 바로 그것.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11월의 ‘목요 콘서트’를 오는 7일, 21일 각각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먼저 7일에는 2018년 광주에서 창단한 ‘줄리브라스사운드’가 출연해 다양한 장르 음악을 금관 5중주로 들려준다.

객석에서 연주를 시작하는 곡 ‘Just a Closer walk’를 비롯해 블루스를 금관악기로 재해석한

곡의 감성과 현대적 특징을 표현한 성악 공연이다. 1920년대, 60년대를 테마로 한 1부는 소프라노 최시원이 ‘고풍의상’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메조소프라노 김혜원의 ‘가고파’, 소프라노 박찬미의 ‘그리워’를 부른다. 60년대 감성을 담은 ‘꽃뚝 속’, ‘그대 있음에’, ‘그리운 금강산’은 각각 최효리, 김혜원, 신지유의 목소리에 실린다.

1980년대 분위기를 자아내는 ‘내 맘의 강물’, ‘별을 케는 밤’ 등은 2부에서 들려준다. 해설에 앙상블 일레아프로 대표 김진희.

빛고을시민문화팀 송선아 담당은 “금관 5중주의 화려한 앙상블, 전통 한국가곡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두 공연을 관객들께 선보인다”며 “수익금 전액은 공연팀에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관람료 5000원, 빛고을시민문화관 유선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성악단체 ‘질러’

상상력 가득 ‘미술쇼’가 진행됐다. 다문화 페스티벌 이퀄(=)은 융합 콘텐트를 주제로 꾸며졌다. 몽골,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네 팔의 6개국 부스에서 현지의 이주민들이 고유 음식을 알리고, 방문객들은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지호 관장은 “올해 미술 페스티벌은 다양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공존과 이해 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다문화와 예술, 문화, 미술 등을 토대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필(=) 행사도 펼쳐졌다.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미술대회는 2개의 부문에 걸쳐 총 270점을 선정했다. 수상작품은 도립미술관 협약기관인 LF스퀘어 광양점에서 전시 혜택이 주어진다. (일정 추후 공지) 체험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로 미술관을 찾아온 관람객들의 표정을 그려 넣는 이색 방명록이 펼쳐졌다. 또한 루트머지의 ‘어린이 국악 공연’, 극단 도깨비의 ‘인형극’, 국제 미술 대회 수상팀 엘비스 매직의

전남도립미술관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 성료

어린이 예술성을 높이고 체험을 확장하기 위한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진행한 ‘2024 JMA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과 ‘다문화 페스티벌 이퀄(=)’이 각각 2, 3일 성료했다. 이틀 간 축제에 3000여 명이 다녀갈 만큼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은 ‘어린이 미술대회’,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이와 맞물려 ‘몽상블라주’ 전시와 맞춰 ‘다문화 페스티벌 이

어린이 예술성을 높이고 체험을 확장하기 위한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진행한 ‘2024 JMA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과 ‘다문화 페스티벌 이퀄(=)’이 각각 2, 3일 성료했다. 이틀 간 축제에 3000여 명이 다녀갈 만큼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은 ‘어린이 미술대회’,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이와 맞물려 ‘몽상블라주’ 전시와 맞춰 ‘다문화 페스티벌 이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편 장면.

(ACC재단 제공)

정음·남원으로 ‘찾아가는 하우편 미니’

ACC재단, 5일·9일 체험·교육 어린이가족문화축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5일과 9일 각각 정음과 남원에서 어린이가족문화축제를 연다.

‘하우편’은 전시를 비롯해 체험, 교육 등을 매개로 펼쳐지는 ACC의 대표 축제다.

이번 ‘찾아가는 하우편 미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등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복지 실현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ACC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이동형 무대 차량을 활용한 공연과 아시아 전통놀이마당 등 문화예술체험 10종,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전북 지역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지난 5월 ACC에서 열린

‘하우편10’ 축제에 참여해 각 기관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반응을 얻기도 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전북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ACC의 인기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쉽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트를 제공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